

2022 THEME

더 깊이 무릎 꿇고,
더 높이 믿음으로 날아 오르는 2022년

GO DEEPER

GO HIGHER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 www.bkc.org ♦ bethel@bkc.org
Tel: 949.854.4010 ♦ Helpdesk(Text-only): 949-229-1181

각 교육부 및 그 외 주일예배 안내

- 영아부(18-36개월) / 본당 2층 영아부실
9:00AM, 11:00AM
- 유아부(37개월-Preschool) / 할렐루야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K-1(킨더-1학년)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유년부(2-3학년) / 유년부실, 온라인
9:00AM, 11:00AM
- 초등부(4-5학년) / 체육관, 온라인
9:00AM, 11:00AM
- 영어중등부(BYM Jr.) / 비전채플, 스튜디오, 온라인
9:00AM(스튜디오), 11:00AM(비전채플)
- 영어고등부(BYM) / 비전채플, 스튜디오, 온라인
9:00AM(비전채플), 11:00AM(스튜디오)
- 한어중등부(CIM) / 살롬채플, 온라인
11:00AM
- 소망부(장애인) / 소망부실, 온라인
9:00AM, 11:00AM
- BETHEL GRACE CHURCH /
베델그레이스채플, 온라인
9:00AM, 11:00PM
- 日本語 礼拝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1:15PM

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공중파 TV 방송:
미주 CBS TV 채널 20.12 · 주일/오전 11시(Live)
미주 CGN TV 채널 44.9 · 화요일/오후 2시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 · 공중파 채널 18.8
화요일/오후 8시 30분 · 목요일/오후 1시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 · 금요일/오후 1시

주 일 예 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1부 예배 | 7:00AM 2부 예배 | 9:00AM 3부 예배 | 11:00AM 4부(청년) 예배 | 2:00PM

-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Presider 예배 인도자
-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 All together 다같이
-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Bethel Worship 베델 워십
1부/다 감사드리세(찬20/새66장)
- 기도 Prayer..... All together 다같이
1부/김명수 장로 2부/김백열 장로 3부/김병수 집사 4부/오새아
- 찬양(1부) Anthem..... Bethel Choir 베델 콰이어
1부/주 안에서 하나되어(작곡 Don Besig)
- 영상광고 Media Announcement Media 방송실
- 유아 세례식 Infant Baptism..... All together 다같이
2부/김노아(Noah), 김준서(Elias) 3부/함로희(Riley), 김예성(David)
-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1, 2, 3부/마태복음 6:13 All together 다같이
4부/마가복음 6:1-13
- 말씀 Message 1, 2, 3부 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게임 체인저(24) 죽 췌서 사탄주지마라

4부 Rev. Abel Kang 강문구 목사

호도스 위에서 로고스를 만나다(16) 고향에서 본향으로

- 적용찬양 Song in Response 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너 시험을 당해(찬395/새342장), 오직 믿음으로
- *결단찬양 및 봉헌 Song of Commitment & Offering 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Go Deeper Go Higher
- *축도 Benediction 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 ★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 ★ 교회학교 예배가 온라인으로 제공됩니다.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담임목사 칼럼
Lead Pastor's Column

2023 정책회의를 다녀와서...

Returning from 2023 Policy Meeting...



김한요 목사 / Rev. Bryan Kim

매년 8월이 되면 저희 베델목회자들은 내년 계획을 위해서 정책회의로 모입니다. 작년에는 시애틀에서 모였는데, 올해는 다시 기승을 부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자동차를 타고 인근 지역을 찾다가, 교회에서 1시간 반 거리인 태매쿨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비교적 가까운 거리지만, 처음으로 태매쿨라를 가보게 되었습니다. 길들이 잘 닦인 것을 보며, 계획되어진 도시임이 느껴졌습니다. 단지들도 새건물로 예쁘게 꾸며져 있었고, 큰 병원도 보이고, 날씨도 바다 바람이 느껴지는 시원한 곳이었습니다. 집값도 알바인보다 훨씬 저렴하고, 또한 남가주에게 유일하게 포도원이 되어 유명한 와이너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한 가지 흠이 있다면, 베델교회가 없었습니다.

우리 목회진들과 함께 3박4일 한 집에서 동거하면서, 서로를 향한 끈끈한 연대감을 증진하고, 큐티로 매일 말씀을 나누면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늘 교역자회의에서 말은 사역만 보고 하고 보고 받다가, 서로의 삶을 같이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은 우리가 베델의 한 가족인 것이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같이 기도하고, 인근 지역을 산행하며 같이 땀 흘린 추억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교회 장로님들께서 첫 식사를 공급해 주시겠다고 그 먼 길을 찾아 오셔서, 맛있는 고기를 구워주시면서 섬겨주셨는데, 우리 목회진들은 말 그대로 어안이 병병했습니다. 교회의 리더십에 계시는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오셔서 밥 한 끼라도 섬겨주시겠다고 오셔서 정성 드려 요리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는데, 우리 모두는 너무나 감격했습니다. 우리는 저절로 외쳤습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하자!" 자연스럽게 우리 모두는 베델의 교역자된 것이 자랑스럽고 뿌듯했습니다. 고무된 마음으로 함께 교회를 위해 내년을 계획하는데, 저는 담임목사로 부교역자들의 그 마음들이 얼마나 귀하고 고마웠는지요... 더 맛있는 거 해주고 싶고, 격려해 주고 싶었습니다.

일만 한다고 일이 잘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같이 놓고, 같이 웃고, 같이 운동하면서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해질 때, 더 의욕적으로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파트타임까지도 다 올라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들었지만, 다음을 기약하고, 정책회의를 마치고 수요일예배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오는 우리들의 마음은 하나도 피곤하지 않고, 의욕과 열심으로 충만했습니다.

힘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이 힘이 아니라, 같이 하는 것이 힘이고, 그 힘은 하나님의 사역에 에너지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하는 힘에서 얻는 동기부여와 기쁨과 충만함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very August comes annual policy meeting for Bethel Pastoral staff to plan for next year. Last year the meeting was held in Seattle. This year, with ramping up of Covid, we looked for a nearby location that we could travel by car. We found a place about an hour and half from church. Temecula is relatively close. It was my first time going there. It seemed like a planned community with well laid out roads. There were very pretty areas with brand new houses, and a large hospital. The weather was nice with breezes. Housing seemed very affordable in the area and, with vineyards, there is a famous winery. If there were one negative thing, there is no Bethel Church.

Spending 4 days and 3 nights together promoted a sense of solidarity within our pastoral staff. As we shared QTs together, we had a great time of understanding each other. During our weekly staff meetings, we usually spend more of our time giving and receiving reports on projects we are in charge of. But being able to share our lives and to pray for each other really brought us together as one Bethel family. We prayed together early in the morning. We then walked the neighborhoods together with unforgettable memories of sweats. One of the church Elders came all the way to provide our first meal of delicious barbeque. Our pastoral staffs were left speechless. We were touched by all of the Elders and Deaconesses of our church leadership who came to cook and encourage us. "Let's do our best!" came out of our lips naturally with pride and joy of being Bethel pastoral members. Our hearts were inspired. We worked together on plans for our church's next year. As a senior pastor, I was most appreciative of our pastoral staff... I wanted to feed them more with delicious food and encourage them.

Just because you work hard doesn't necessarily mean you produce good work. When we play, laugh and exercise together, our hearts become full. I realized that this is when we become even more ambitious with our work. I wished we could have brought even the part time staff. However, we finished planning for next year, ended our policy meeting and headed back to church for Wednesday worship. We were not tired. Our hearts were still full of will and enthusiasm.

I realized that resting is not to simply stop working. Being together is resting, and resting becomes energy for doing God's work. May our congregation find rest in being together, and be filled with motivation and joy from that rest.



주일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김한요 목사

죽 썬서 사탄주지마라

(마 6:13)

1. C. 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서론에 쓴 말에 동의하십니까?

적용하기



2. 우리에게 다가온 시험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석하기를 원하십니까?

() ()

3. 시험이 유혹이 되어 그곳에 내가 빠진 이유는 무엇입니까?(참고/ 약 1:14-15, 잠 17:1)

4. 우리가 유혹에 빠지는 또 하나의 이유는 '악'입니다. 사탄은 호시탐탐 성도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전략을 세우고 공격을 시도합니다. 어떻게 악의 공격을 감당할 수 있을지 그 지혜를 나누어 봅시다.(참고/ 엡 6:11-13)

1) _____

2) _____

3) _____

5.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다음 구절을 읽고 그 피할 길이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참고/ 히 4:15, 고전 10:13)

셀 구역

셀 목자여서 감사합니다



은혜목장의 "예수 안에서" 셀을 소개합니다. 저희는 현재 다섯 가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일 저녁 모임 때마다 담임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서로 나누며 은혜

를 다시 맞춥니다. "문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께서 우리 셀식구들과 "더불어 먹고" 저희는 예수 안에서 함께 간단한 식사와 귀한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셀식구들의 식사와 교제 시간은 너무나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 오시니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찌어다." 아멘!

김종곤 집사(예수 안에서 셀)



예배 후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공원에 모여 맛있는 음식을 먹고 교제하다 보면 주일에 받는 은혜가 배로 풍성해 집니다. 모임 때마다 여러 방면으로 함께 섬겨 주시고

서로를 위해주는 우리 셀식구들 덕분에 항상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길었던 방학이 끝나고 다시 셀모임을 시작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번 한 학기를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영적으로 더 성장할 수있을지 생각하게 됩니다. 이번 학기 셀모임은 특히 더욱 말씀을 깊이 나누고, 기도에 힘쓰며 하루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부여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앤드류 유 집사(힐링캠프2 셀)



이번 학기부터 기존의 셀에서 분가해 셀목자로 세움 받아 새로운 가정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한두 가정을 제외하고는 처음 만나는 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도 처음에는 서먹한 모습이지 않을까 싶어서 모이기를 힘쓰며 서로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나누는 셀이 되는 새 학기가 되도록 계획하고 있습

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뜨겁게 중보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필요에 대한 기도보다 하나님의 뜻에 수렴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셀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노력하는 셀목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엄대석 집사(회개2 셀)



첫사랑셀이 두 번째 학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셀목자가 된 제게 첫사랑 셀식구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축복이며 은혜였습니다.

특히 아침마다 셀식구들과 나누는 큐티는 하루를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었고, 각자의 안부를 확인할 수있는 인사가 되었습니다. 매일의 큐티 나눔은 주일 예배로 이어져서 더욱 큰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매주 예배 후 빠짐없이 모여 각자 성의껏 준비한 다과와 음료를 나누며 그날 받은 은혜를 나누는 셀모임이 늘 기대되고 행복합니다. 이번 새학기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많은 셀식구들이 제자 훈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셀이 되도록 성령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최동주 집사(첫사랑 셀)



셀목자의 자리는 가끔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은혜로운 자리인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셀식구들이 셀 모임에 참여하는 마음가짐도 어찌면 비슷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참 연약하여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한다면 부담이 되고 결국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이번 가을학기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의 자리로 더욱 나아가는 힐링캠프1 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최종형 집사(힐링캠프1 셀)



매주 화요일 11시에 모이는 주님동산1 셀은 셀식구 각자의 형편으로 8명 전원 출석 셀모임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얼굴이라도 뵙고자 각자 예배 시간

은 다르지만 2부 예배 후 야외코트에서 함께 모여 베델의 김밥과 맛있는 다과를 함께 나누며 서로의 소식도 나누고 짧게나마 교제의 시간을 가집니다.

배델교회에는 많은 성도들이 계시고, 아는 얼굴들은 많이 있지만 가끔은 군중 속의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매주 함께 반갑게 반겨주고 대화가 이어지는 셀식구들, 한 주라도 못 만나면 오랜만이라고 느끼는 셀식구들, 기도제목의 응답을 기대하며 서로를 챙겨주는 셀식구들이 있어 든든하고 의지가 됩니다. 셀식구 서로의 형편을 아시며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장의 목사님을 반갑게 대하며 스스로없이 기도를 부탁드릴 수 있는 자리. 주님이 우리 셀에게 텅으로 주시는 귀한 주일 셀모임의 식사교제시간에 더욱 은혜가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하선희 권사(주님동산1 셀)



교육부

한 학년을 마치며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일 아침 9시, 본당 2층에서는 15명 정도의 영어 중등부 학생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1시에 비전 채플에서 90여 명의 학생이 드리는 예배와 똑같은 순서로 예배를 드린 후 여학생과 남학생으로 나누어 소그룹 성경 공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매주 이 시간마다 채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학년을 마치며 하고 싶은 말을 짧게 써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학생 한 명 한 명과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짧은 글에 담긴 학생들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제자 훈련을 받고, 선교지를 다녀오고, 여름 수양회에서 우리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경험하고, 어마어마한 주님의 사랑이 우리자녀와 동행함을 볼수있고, 그 은혜를 가까이에서 나눌 수 있음이 정말 큰 축복으로 느껴집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겠다는 결단을 하는 학생들을 대하며 너무나 큰 주님의 사랑이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이험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며, 주님께서 언제나 이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김성홍 권사 (BYM 교사)



이 길을 지나오면서 주님이 나의 도움이심을 깨닫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언제나 주님을 찬양할 거예요.

이번 학년을 지나오는 동안 하나님은 저에게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하나님은 저의 마음의 어려움들을 사라지게 해 주셨고 항상 저를 지켜 보호하시는 분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베델교회에 온 후,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방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교회의 프로그램들을 통해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주님께서 저에게 좋은 것을 많이 주셨습니다. 제가 구하지 않았더라도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매일매일 좋은 추억을 주님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제가 도움이 필요할 때 주님은 저를 늘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학교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이 함께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혼자가 아닌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늘 동행하시며 제가 어려움을 이겨 내도록 힘주십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친구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저희 가족 모두와 함께해주시고 채워 주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항상 저를 챙겨주시는 엄마 아빠가 계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매주 좋은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좋은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학교보다 교회가 더 좋아요.

한 학년을 잘 마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힘주셔서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이번 학년을 무사히 끝마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시고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셨고,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였습니다.

이번 한 학년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지혜로운 언니를 주셔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합니다

교육부-제자반

기쁨의 눈물 찾은 행복 처방전



저는 이번 Discipleship Training 2에서 교사로 섬기며, 오랫동안 어른 사역만 해오다 학생들 사역을 처음으로 하게 되면서 신선한 충격과 감동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직 어린 학생들이 교리를 배우고, 저 역시 궁금해하던 문제들을 스스로없이 물어보며 순수하게 나누는 모습, 그리고 매주 말씀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외우며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던 10주였습니다.

학생들뿐 아니라 교사로 봉사하시는 선생님들을 보면서도 놀랐습니다. 생활의 많은 방해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변명을 했던 저는, 아직 어린 고등학생, 대학생, 선생님들이 성숙한 모습으로 어린 학생들을 위해 시간을 내어 말씀을 공부하는 모습과 바

쁜 시간을 쪼개서 교사로 봉사하며 섬기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을 회개하고, 이런 분들을 만나게 하심에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남편과 함께 교사로 섬기게 되었고, 아이들이 DT2 훈련을 하게 되어서 온 식구가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9시 11분에 알람을 맞추어 놓고 그 시간이 되면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짧게 매일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성경 말씀을 외우느라 힘들어 하는 둘째를 위해 울동까지 만들어 가며 도와주던 남편, 그리고 친구들과 교리 말씀을 나누는 큰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시간이 앞으로 저희 가족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뿌리 내릴 수 있게 하는 귀한 기초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Chloe와 Cailyn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8학년 같지 않게 성숙하

고 속이 깊은 Chloe, 그리고 통통 튀는 발랄함으로 늘 웃겨주는 Cailyn, 이 두 학생을 보면서 열심히 훈련받는 모습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하게 되었고, 신앙의 성숙이란 나이에 상관없이 늘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었습니다. 중학생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 엄마로서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키워나갈 수 있을까 고민하던 저희 부부는 DT2를 통해 그런 기회를 하나 만나게 되어 참 감사합니다.

급변하는 세상, 하나님을 점점 등져가는 세상에서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훈련해주신 베델교회 목회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최란영 집사(DT 교사)

베델 선교-BAM

마치 오랜 친구처럼



그토록 바라던 둘째 아이를 뱃속에 얼마 품어보지도 못하고 유산을 한 후 집거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3개월의 시간은 슬픔과 억울함, 분노의 시간이었었고 동시에 하나님을 향해 바짝 엮드려 처절하게 나아간 시간이었습니다. 방향을 마치고 나와 주일대면 예배에 참석했는데 BAM 훈련에 대한 광고가 있었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 어느 새 나는 무엇에 홀린 듯 BAM 훈련생 모집 부스에서 사인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상시에 무언가를 배우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 저는 설레며 수업에 참석했는데, 생각보다 성실성을 많이 요했기 때문에 조금 두렵기도 했습니다. 3살배기 아이에게 아직은 엄마의 손이 많이 필요한데 매주 한 번 저녁 시간에 자리를 비워도 될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다지 돈독하지 않은

남편이 이 상황을 잘 이해해줄까, 이 훈련의 동기를 묻는 남편에게 난 대답도 잘 하지 못했는데 걱정도 됐습니다. 그러한 걱정도 잠시, BAM 수업에 참여하며 예전과 같은 명랑함을 회복했고, 훈련 속에서 편성된 스쿼드에서 좋은 분들을 만나 그 분들과 하나님 얘기를 실컷 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또 일주일의 삶을 나누며 마치 오랜 친구처럼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울었습니다.

또한 삶의 많은 부분에서 관점의 전환이 있었습니다. 예배와 리더십, 선교가 무엇인지, 삶의 청지기적 자세는 어떠한지에 대해 배우며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이래서 이 훈련을 받게 하셨구나, 앞으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써 주실까' 시간이 지날수록 제 안에 확신과 기대감이 생겼고, 매주 목요일엔 저녁에 있을 BAM 훈련에 아침부터 설레었습니다. 그렇게

BAM 훈련을, 삶으로 나누는 교제를, 그리고 우리 스쿼드 분들을 사랑하게 되었고, 중보하는 삶으로 변화가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께서 훈련을 마친 앞으로의 여정도 더 스펙타클하게 이끌어 가시리라 믿기에 기대가 됩니다.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배운대로 실천하며 성장하는 우리 BAMer들의 모습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도 BAM 훈련을 권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한정훈 집사



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목회자◎

기획/행정: 이충경 목사
 사랑/목회지원/선교/QTM: 정승락 목사
 소망/예배/선교훈련/BAM: 주성필 목사
 믿음/훈련/평생교육: 김홍식 목사
 화평/베델워십/셀: 박경철 목사
 은혜/교육부/전도폭발: 박성권 목사
 충성/이웃사랑/시니어: 조태현 목사
 새가족/경조/기도/예향: 한순교 전도사
 BGC: Justin Kim 목사
 BGC(Family): Dan Nam 목사
 BGC(College/Worship): Peter Lee 전도사
 일본어 예배/헬시바: 손용주 목사
 예살채플(총괄): 강문구 목사
 예살채플: 공병주 전도사
 예살채플: 김유미 전도사
 영어고등부: 여옥제(John) 목사
 영어중등부: 현호승(Daniel) 전도사
 한어중고등부: 이형석 전도사
 다음세대 S.P. 디렉터: 이진아(Jinah) 전도사
 초등부: 이정연 전도사
 유년부: 이승진(Sharon) 전도사
 K-1: 정가영(April) 전도사
 영아부: 이진영 전도사
 소망부: 박정민 전도사
 Beyond the Blue: 이란해 전도사
 통역/제자반: 이앤드류 전도사

◎베델 콰이어 및 찬양팀◎

지휘자: 김형직 목사
 솔리스트: 최정원
 뮤직디렉터: 정봉화
 반주자: 한현미, 이정은

◎사역 간사 및 인턴◎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유아부/한어권: 정티나 인턴 전도사
 영어중고등부: Grace Park 인턴

◎교회 직원 및 간사◎

사무장: 마현진
 건물/차량관리: 김유호
 사무실: 인현미, 박성혜
 재정실: 이수민
 방송실장: 박주남 전도사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음향: 최철기
 음향: 강창위
 방송실: 최종형, 김지현
 디자인: 박선경
 웹: 김정아
 수양관: 오춘란

사역광고

2022 베델선교대회

모든 민족과 열방과 온 세계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오는 9월 초에 베델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진정한 예배가 될 베델선교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교 전략 지역인 흑해 연안의 나라, 조지아에서 열리는 이번 선교대회의 목적은 첫째로 팬데믹의 힘든 시간을 보내신 베델의 파송 및 협력 선교사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과 위로의 시간을 갖고, 새 힘을 얻어서 사역의 현장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것입니다. 베델의 선교사님들이 코로나 이후 선교의 다음 챕터를 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비전을 받으며, 영적인 힘을 넘치도록 채우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이번 선교대회가 향후 10년 베델 선교의 방향을 잡는 놀라운 시간이 될 것을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현재 후원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의 사역을 나누고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 하는 선교"를 통해 커다란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선교 모델을 꿈꾸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선교 방향이 잡히고, 선교사님들께 소중한 위로와 안식과 재충전의 기회가 될 베델선교대회! 직접 현장에서 섬기는 봉사자들만이 아니라, 함께 가지 못하더라도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응원하고 동참하며,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와 예배를 통해 머리 되신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주님의 한 몸, 베델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Go deeper, go higher, go together, 베델 선교대회!



▶ 주제: Go together! 함께 가는 총체적 선교

▶ 장소: 조지아 트빌리시 및 인근 지역들

▶ 일시(현지 시각): 9월 8일(목)~14일(수)

▶ 문의: 정광목 집사 (949)233-3963

예배 봉사자

주일예배 대표기도(9월) |

9/4: ①부-김병찬	②부-Sam Kim	③부-김성균	④부-윤여훈
9/11: ①부-김수명	②부-김인규	③부-김인권	④부-이중원
9/18: ①부-김수열	②부-김교식	③부-김연조	④부-이신경

헝시바토요새벽 대표기도(9월) |

9/3: 선우영	9/10: 박상범	9/17: 손상현	9/24: 손석환
----------	-----------	-----------	-----------

강단꽃(8,9월) 8/28: 조현지, 정선경, 현승원	9/4: 이상덕	9/11: 김홍식, 정배호	9/18: 김인권, 손서영 이강훈, 조혜성
---------------------------------	----------	----------------	-------------------------

[의무실 (오전 8:30-오후 1:00)]

이번주 | 의사-박현진(한외과), 간호사-황선영

다음주 | 의사-노완규(내과), 간호사-윤경자

선교후원

[파송선교사] 창의적접근지역 | 손승옥, 김진영(김은경), 이바나바(옥소리), 장과장(주열매), 호세아(그사랑), Nader(Dina), Yeshua, Karim, 박기쁨
 BAM | 서형렬(서정희) 조지아 | 김현수(고봉주) 캄보디아 | 황순현(황현주)

[협력선교사] 기니비사우 | 유요한(글로리아) 니카라과 | 박우석(이현숙) 이스라엘 | 장익석(정인나)

멕시코 과달라하라 | 허익현(김영중) 몽골 | 을지바트(민애령), Kathy Ribbs 베트남 | 성결(양선) 온두라스 | 이동철(이순미)

우간다 | 박민수(이순영) 일본 | 강민숙(변선영) 캄보디아 | 김우정(박정희) 코스타리카 | 금상호(김미경)

탄자니아 | 황광인(황영숙) 태국 | 박상선(신영선) 필리핀 | 김송봉(유영선)

창의적접근지역 | 이희숙, 김예령(김진영), 희바(배안)

*선교기관 | 나눔선교회, 멕시코 장로회 신학교, 밀알선교회, 바실레이아 신학교, 소망 소사이터티, 한미가정상담소, Gift of Vision, GPM주본부, NAUH, New Hope 선교 유치원, QTM America, Silk Wave Mission, The Center for BAM(CBAM), The Gospel Coalition(TGC)

*특별선교 | 복음방송(GBC), CBS, CTS, CGN TV

*문서선교 | 기독교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베델 알리판

◆ **주차안내** 교회 비전센터 뒤편 중국교회 주차장은 BGC 영어권 예배 전용으로 사용되니, 비전주차장이나 교회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반기 셀모임 시작** 9월 4일(주일)부터 하반기 셀모임을 시작합니다. 셀 목자 정기 모임은 9월 17일(토)부터 시작 됩니다.

◆ **수요 예배** 김한요 담임 목사님의 "천국의 비밀을 향해 던지는 조약돌 네 개" 시리즈 네 번째 시간이 오전 10시에 현장에서 있습니다. 저녁 7시에는 Youtube로 방영됩니다

◆ **바ible 클럽 등록** 16주에 걸쳐 온라인을 통해 성경통독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교회 본당 앞 설치된 부스나,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문의: 8월 21일(주일)-8월 28일(주일), 최호석 집사 (949)236-0042
*링크를 통해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담당 목장 목사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 **베델 제자훈련 개강** 2022-23베델제자반(한/Eng)과 가을학기 양육반(한/Eng) 훈련 과정이 이번주 화요일(30일)부터 시작됩니다.

◆ **베델 MIT 대학 접수** 시니어들(62세 이상)을 위한 베델 MIT 가을학기가 열립니다. 9월 7일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진행되며, 본당 앞 부스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강좌: 생활한의학, 통기타, 아코디언, 노래교실, 붓글씨, 동양화, 서양화, 뜨개질, 중국어 등 문의: 이선갑 장로 (949)514-5999, 조태현 목사 (949)431-8440

◆ **57차 전도폭발 모집** 복음 증거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전도폭발에서는 복음의 내용을 배우고 효과적으로 전하는 방법을 훈련하게 됩니다. 훈련 일정/장소: 8월 30일-12월 13일(총 15주)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조이채플 등록 방법/문의: 교회 앞 부스 or 교회 홈페이지, 김종곤 집사 (714)450-0015

◆ **베델 선교 대회** "Go together! 함께 가는 총체적 선교"라는 주제로 선교대회가 9월 8일(목)부터 14일(수)까지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열립니다. (7면 참고)

◆ **베델 BAM 훈련생 모집** 비즈니스 세계 속 일대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한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교회 본당 앞 부스나 홈페이지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일시: 9월 1일(목)부터 12주간,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문의: 유형석 집사 (949)533-4132

◆ **단기선교 팀원 모집** 멕시코와 우간다에서 건물 페인팅, 어린이 VBS, 의료, 안경, 사진 등의 사역으로 함께 하실 단기선교팀원을 모집합니다. 신청은 교회 홈페이지(bkc.org)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1일 멕시코(박영완/정기영 선교사)
선교기간 9월 24일(토) or 11월 5일(토) 문의: 고석민 장로 (714)501-7456
- 우간다(박민수/이순영 선교사)
선교기간: 10월 17일(월)-26(수) 문의: 박원규 장로 (949)433-0557

◆ **교회학교 졸업식** 교회학교 졸업식이 오늘(28일) 각 부서 예배시간에 있을 예정입니다. 졸업생은 9월 4일(주일)부터 새 부서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Bethel Announcements

◆ **교회학교 큐티인 섬머 챌린지** 교회학교에서 7-8월간 진행되었던 섬머 챌린지 시상식이 오늘(28일)에 있습니다.

◆ **교회학교, CIM 교사 및 TA 모집** 다음세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문의는 각 부서 담당 전도사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섬김 시간: (2부 예배) 9시-10시 30분 / (3부 예배) 10시 30분-12시 45분

◆ **9월호 교회학교 큐티인 판매** 영문 9월호 큐티인이 실내카페에서 판매 됩니다. 주중에는 사무실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 **교회학교와 청소년을 위한 정기구독** 베델교회학교와 BYM, CIM 학생들을 위한 정기구독을 시작합니다. 베델교회 등록된 자녀들을 위해 특별 할인된 가격으로 1년 정기 구독을 하실 수 있으며 책은 각 부서에서 매달 자녀들에게 나누어 드립니다. 특별할인 가격은 9월 한 달 동안 적용 됩니다. 정기구독 신청: <https://www.qtin.org/shop/-/8> 또는 각 부서에서 QR코드로 신청 문의: 정승락 목사 (714)512-1206

◆ **한국 수해 헌금** 한국의 수해입은 작은 교회를 위한 헌금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복음과 도시"라는 단체를 통해 서울 동작구청의 도움을 받아 수해입은 교회들을 돕게 되었습니다. 8월 14일 1차로 \$17,740이 되어 보냈으며 지난 주중에 2차로 \$10,968.82를 보냈습니다.

◆ **2022 GMMMA Conference 등록 안내** "God Reigns"라는 주제로 의료 컨퍼런스가 개최됩니다. 베델 교인들은 위한 50% 특별 등록비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기간/장소: 10월 21일(금)-22일(토), 베델교회 문의: 오세영 집사 (949)892-9929, conference.gmma7.org

◆ **코트야드 공사 안내** 공사가 진행 중이오니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베델교회 스마트 폰 APP 안내** 당분간 서비스를 중단합니다.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하해 주세요

- 오늘(28일) 2부예배 때 김형준/송예랑 집사의 아들 김노아(Noah)와 김준희/티나 김 성도의 아들 김준서(Elias)의 유아세례식이 있습니다.
- 3부예배 때는 함장현/조혜리 성도의 딸 함로희(Riley)와 김종석/변정아 집사의 아들 김예성(David)의 유아세례식이 있습니다.

◆ 위로해 주세요

- 故 신해철 성도님(신동녀 권사의 부친, 박원규 장로의 장인)께서 8월 15일(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 故 조태학 성도님(박귀영 집사의 부친)께서 8월 21일(주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 故 장종근 집사님(장효준 집사의 부친, 정명희 집사의 시부)께서 8월 22일(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 故 김현희 권사님(우희연 권사의 모친, 우성무 집사의 장모)께서 8월 22일(월)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베델뉴스 편집위원

■ 발행인: 김한요 담임목사 ■ 편집장: 유미경 권사 ■ 사진: 박상곤 장로, 최호경 집사
■ 기자: 강수연 자매, 김선홍 권사, 김지연 집사, 김휴리 집사, 박인주 집사, 박정원 집사, 박진아 권사, 안예진 집사, 이지애 집사, 정보미 집사, 정지혜 집사, 최경희 권사, 허성숙 집사, 황수정 집사

◆ 베델뉴스 원고파일은 bethelnews@bkc.org로 보내주세요.

비전 주차장 3345 Michelson Drive, Irvine, CA 92612 *주차 시 (Employee Reserved Parking)은 피해서 주차하시기를 알려드립니다.

갈릴리 수양관 31640 El Cariso Trail, Lake Elsinore, CA 92530 ◆ 수양관전화번호(예약문의) (949) 943-9697 ◆ E-MAIL bgrcenter@hotmail.com



Don't Make Porridge Only to End Up Giving It to Satan

(Matthew 6:13)

Apply to Life



1. Do you agree with the introductory comments of 'Screwtape Letters' by C.S. Lewis?

2. When we are tested at difficult times, there are two ways to interpret them. What are they? And, how do you want to interpret them?

3. When faced with a test of temptation, why do you think we fall into them? (Ref: James 1:14-15, Prov 17:1)

4. Another reason we fall into temptation is 'evil'. Satan is constantly watching for an opportunity to attack us in new ways and tactics. Please discuss how we can prevail against the attacks of evil.
 - 1) _____
 - 2) _____
 - 3) _____

5. When we are tested by temptations, God will give a way out to avoid them. Please read the referenced verses and share ways to avoid them. (Ref: Heb 4:15, 1Cor 10:13)